

# 영원철학(The Perennial Philosophy)으로 본 대순사상의 궁극적 실재

## Ultimate Reality in Daesoon Thought as Viewed from Perennial Philosophy

허훈\*

**Heo Hoon.** Former Lecturer,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Modern scientists are trying to find the basic unit of order, fractal geometry, in the complex systems of the universe. Fractal is a term often used in mathematics or physics, it is appropriate as a principle to explain why some models of ultimate reality are represented as multifaceted. Fractals are already widely used in the field of computer graphics and as a commercial principle in the world of science.

In this paper, using observations from fractal geometry, I present the embodiment of ultimate reality as understood in Daesoon Thought. There are various models of ultimate reality such as *Dao* (道, the way), *Sangje* (上帝, supreme god), *Sinmyeong* (神明, Gods), *Mugeuk* (無極, limitlessness), *Taegeuk* (太極, the Great Ultimate), and *Cheonji* (天地, heaven and earth) all of which exist in Daesoon Thought, and these concepts are mutually interrelated. In other words, by revealing the fact that ultimate reality is embodied within fractal geometry, it can be shown that concordance and

---

\* 중앙대학교 (전) 강사, E-mail: huhhoon@sen.go.kr

transformation of various models of ultimate reality are supported by modern science.

But when the major religions of the world were divided along lines of personality (personal gods) and non-personality (impersonal deities), most religions came to assume that ultimate reality was either transcendental or personal, and they could not postulate a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umanity as Yin Yang (陰陽) fractals (Holon).

In addition, religions, which assume ultimate reality as an intrinsic and impersonal being, are somewhat different in terms of their degree of Holon realization - all parts and whole restitution. Daesoon Thought most directly states that gods (deities) and human beings are in a relationship of Yin Yang fractals.

In essence, “deities are Yin, and humanity is Yang” and furthermore, “human beings are divine beings.” Additionally, in the Daesoon Thought, these models of ultimate reality are presented through various concepts from various viewpoints, and they are revealed as mutually interrelated concepts.

As such, point of view regarding the universe wherein Holarchy becomes a models in a key idea within perennial philosophy. According to a universalized view of religious phenomena, perennial philosophy was adopted by the world’s great spiritual teachers, thinkers, philosophers, and scientists. From this viewpoint, when ultimate reality coincides, human beings and God are no longer different.

In other words, the veracity of the theory of ultimate reality that has appeared in Daesoon Thought can find support in both modern science and perennial philosophy.

**Key words:** Ultimate Reality, Fractals, Holon, Daesoon Thought, Perennial Philosophy

- I. 서언
- II. 세계 주요 종교의 궁극적 실재
- III. 영원철학의 궁극적 실재 일치론
- IV. 대순사상에 나타난 궁극적 실재의 프랙털적 양상
- V. 결어

## I. 서언

일찍이 아인슈타인은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요,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장님은 앞길을 볼 수 없으며, 나아갈 방향을 모른다. 또한 절름발이는 걸음걸이에 어려움을 겪는다.<sup>1)</sup>

그렇다면 종교에 절실히 요구되는 과학이란 무엇인가? 수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현대과학에 방점을 둔다면 “과학이란 우주라는 이 복잡계(카오스)가 그 가장 밑바닥에 감추고 있는 질서의 기본단위(프랙털)<sup>2)</sup>

1) 종교와 과학은 상보적 관계에 놓여 있다. 이론 물리학자 손 캐럴(Sean Carroll)은 “장엄한 우주적 개념을 불교식으로 이야기하기 위해 단어를 선택하다 보면 의도하지도 않았던 유사성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손 캐럴, 『현대물리학, 시간과 우주의 비밀에 답하다』, 김영태 옮김 (서울: 다른세상, 2012), p.619. 켄 윌버는 종교들이 현대과학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영성은 현대 과학의 바늘귀를 통과해야 하며… 종교가 먼저 과학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이상 자유주의는 영성의 말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라고 말한다. Ken Wilber, 『켄 윌버의 일기(One Taste: Daily Reflections on Integral Spirituality)』, 김명권·민회준 옮김 (서울: 학지사, 2011), p.355.

2) 주지하듯이, 프랙털(fractal)에 대해 처음 언급한 이는 수학자 브누아 망델브로(Benoit B. Mandelbrot, 1924~2010)이다. 그는 프랙털 기하학 분야를 개창하였다. 프랙털이라는 말은 ‘부서지다’라는 뜻의 라틴어 ‘frangere’에서 파생된 fracture(분열)와 fraction(파편)을 조합한 것이다. 유클리드 기하체는 미분이 가능하며 정규적 모양을 지녔는데 비해, 프랙털은 비규칙적으로 갈라진 구조를 가진다. 그 부분을 확대하면 전체의 모습과 비슷한 구조가 다시 나타나는데, 이를 자기닮음성 혹은 자기 유사성이라고 한다. 프랙털 도형은 무한히 확대를 해도 도형의 세부적인 것이 없어지지

을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적 홀로그래피<sup>4)</sup>의 메커니즘 속에는 프랙털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한다.

프랙털은 주로 수학이나 현대물리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어떤 궁극적 실재가 다면적인 양상을 드러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프랙털적 원리’보다 더 적합한 용어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프랙털의 원리를 활용하여 궁극적 실재가 구현되는 양상을 밝히려고 한다. 프랙털(fractal)은 이미 과학계에서 상용화된 원리로서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순사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수학적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적용되는 부분이 커지는-그만큼 과학적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몇몇 현대물리학자들은 “신은 수학자이다.”<sup>5)</sup>라고 말한다.

대순의 ‘인존’사상에서는 인간이 신(神), 천지(天地)와 같은 위상을 갖는다. 하지만 그 종합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타종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사상이다. 특히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줄 공산이 크다. 유일신을 신봉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위격(位格)이 신과 동격(同格) 혹은 그 이상일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적인 접근법을 통해, 신(神)과 천지(天地)의 프랙털이 인간이고 천지신명의 프랙털이 우리의 마음[인존(人尊)]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양상은 달라질 것이다.

프랙털의 원리(영원철학의 홀라키, 홀론)를 적용하여 대순사상의 궁극적 실재의 종합적 성격을 밝히는 것이 본고의 주된 취지다. 이에, 세계의 거의 모든 고등 종교의 공통적 핵심 교의에 해당하는 영원철학으로 대순사상의 궁극적 실재를 파악하려 한다. 따라서 대순사상의

않는다. 최창현, 『신과학 복잡계 이야기』 (안성: 종이겨울, 2010), pp.147-148.

3) 이균형, 『우주의 홀로그래피』 (서울: 정신세계사, 2016), p.10 ; 김상욱, 『김상욱의 양자공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7), pp.184-186.

4) 홀로그래프는 입체영상을 담은 필름을 말하며, 라틴어 holo(whole)와 gram(drawing)을 합친 말이다. 우리말로 “‘온’ 그림”인데, 피사체가 반사하는 빛의 모든 파면(波面) 정보를 온전하게 기록하기 때문이다. 홀로그래피(holography)는 홀로그래프 입체상을 만들어 내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 홀로그래피에 감춰진 질서의 조각이 프랙털이다.

5) 켈 윌버 편, 『현대 물리학과 신비주의』, 박병철·공국진 옮김 (서울: 고려원미디어, 1990), p.156.

다면성, 종합성을 언급하려면 그 비교 대상으로서 세계 종교의 그것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본고 II장에서는 세계 주요 종교들을 열거해 보고 각각의 종교가 표명하는 궁극적 실재의 모습이-표면적으로 보기에-상이(相異)함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세계의 위대한 영적 스승들, 사상가들, 철학자들, 사색가들이 채택한 보편적인 종교관에 따르면 궁극적 실재는 일치한다. 그래서 III장에서는 영원철학에 나타난 궁극적 실재 일치론을 소개한다. 그리고 IV장에서는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일치·회통할 수 있는지’ 대순사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 II. 세계 주요 종교의 궁극적 실재

종교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경전의 유무나 신의 숫자, 지역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계통이나 형태<sup>6)</sup> 혹은 신념<sup>7)</sup>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또 하나의 기준으로서 일반적인 분류 중의 하나는 세계종교를 인격신교와 비(非)인격신교로 나누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모든 종교는 궁극적 실재(Ultimate Reality)를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궁극적 실재를 i) 초월적이며 인격적인 존재로 상정(想定)하는 종교 ii) 내재적이며 비인격적 존재로 상정하는 종교로 구분한다.

오강남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계 종교 갈등의 원인은 표층종교에 있지 심층종교에 있지 않다. 심층을 보지 못하는 각 종교들의 궁극적 실재에 대한 표층차원의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다. 본고의 목적은 종교 갈등의 근원적 원인 즉 궁극적 실재에 대한 각 종교들의 상이한 인식

6) 주지하듯이,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종교의 발전단계를 자연종교, 예술종교, 계시종교로 나눈다. 서양근대철학회 엮음, 『서양근대 종교철학』 (과주: 장비, 2015), pp.546-547.

7) 종교학자 윤이훈(尹以鈞)은 한국 종교사를 고찰하면서 기복형(祈禱型), 개벽형(開闢型), 구도형(求道型)으로 나눈다. 윤이훈, 『한국종교연구 1』 (서울: 집문당, 2000), pp.9-44.

을 해소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분명히 해 둘 것은, 이 논의는 표층종교의 궁극적 실재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이지, 심층종교의 그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종교는 신의 초월을 강조하는 표층, 초월과 동시에 내재를 주장하는 심층을 함께 가진다. 물론 이로 인해 영원철학은 성립된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교들의 경우 표층이 심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두꺼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세계 주요 종교를 둘로 나누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세계 주요 종교의 궁극적 실재에 대한 견해

궁극적 실재(Ultimate Reality)	
i) 초월적·인격적인 존재로 상정하는 종교	ii) 내재적·비인격적 존재로 상정하는 종교
유대교(Judaism) 기독교(Christianity) 이슬람교(Islam) 시크교(Sikhism) 조로아스터교(Zoroastrianism) 바하이교(Baha'i faith) 힌두교(Hinduism) 신도(神道)	유(儒, Confucianism) 불(佛, Buddhism) 도(道, Taoism) 자이나교(Jainism)
영원철학(Perennial Philosophy)	

종교분류는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 표층의 종교를 염두에 두고 여느 종교를 어떤 한 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당장 해당 종교는 심층종교의 입장에서 반박을 할 수 있다.<sup>8)</sup> 하지만 종교문제의 발단은 심층종교가 아니라 표층종교에 있으므로, 문제를 해소하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표층차원의 인식을 염두에 두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세계 주요종교를 선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 어떤 종교가 세

8) 이런 논법은 논리학상(上)의 “발생적 오류”다. 발생적 오류는 어떤 관념, 제도, 관습 등의 의의를 밝힐 때 그것의 발생(기원)이나 이전의 형식으로 설명함으로써 현재 상황을 간과(看過)하는 것이다.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은 어떤 것의 원래 맥락이나 이전의 형식에 대해서 내렸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현재 상태에 적용한다.” 에드워드 테이머, 『영터리 논리 길들이기』, 김희빈 옮김 (서울: 새길, 1994), p.204.

계 주요 종교라고 할 수 있는지는 학자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다. ‘왜 우리 종교가 주류 종교에서 제외되었는가?’라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 어떤 기준이나 준거를 제시해도 설정 기준 자체에 대한 논박이 가능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단순하게 신도의 숫자<sup>9)</sup>와 궁극적 실재를 초월적·인격적인 존재로 상정하는 종교와 내재적·비인격적 존재로 상정하는 종교로 구분한다.<sup>10)</sup>

일반적으로 서양에서의 신(神)은 인격적, 외재적·초월적인 존재로 상정되는데 반해, 동양에서 말하는 공(空), 불성(佛性), 리(理), 도(道)와 같은 존재는 비인격적이며 내재적 존재라고 말한다. 그래서 i)에는 신은 오직 하나라고 주장하는 나나크(Nanak)의 시크교(Sikhism), 기독교(Christianity), 조로아스터교(Zoroastrianism), 유대교(Judaism), 이슬람교(Islam), 바하이교(Baha'i faith)<sup>11)</sup>, 일본의 신도(神道)<sup>12)</sup> 그리고 힌두교(Hinduism)<sup>13)</sup>가 속한다. ii)에는 유(儒, Confucianism),

9) 종교별 인구수(1998년)로 따지면,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시크교, 도교, 유대교, 바하이교, 유교, 자이나교, 신도, 파시교(조로아스터교) 순이다. 프랭크 웨일링 외 11인, 『종교: 지도로 본 세계 종교의 역사』, 김한영 옮김 (서울 : 갑인공방, 2005), p.15.

10) 본고에서는 엄밀하고 세부적인 종교 분류를 시도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종교 분류의 기준이나 준거가 많아질수록 배속의 어려움도 커지고 오류의 가능성도 커진다. 단지, 영원철학과 비교하여 세계 주요 종교들의 신에 대한 이해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쳤는가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개략적인 분류를 시도한다. 영원철학에서는 “신(신성, Godhead)이 내재적(immanent)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초월적(transcendent) 존재”라고 한다. 따라서 ‘내재적[비인격신]’과 ‘초월적[인격신]’이라는 동시에 양립하기 어려운 두 신관을 중심으로 양분한다. 윤이훤이 지적하였듯이, “세계종교사의 시각에서 신관(神觀)의 유형(類型)에 관해 살펴보면… 신관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신에 관한 논의를 하거나 자신의 신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때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신을 하나의 특성으로 축소시키는 이른바 환원주의(還元主義)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특히 신의 이해에서 두드러졌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 점이 표층종교 간의 갈등의 근원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이를 영원철학을 통해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A Huxley, *The Perennial Philosophy* (New York: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 1990), p.38; 윤이훤, 『한국종교연구 6』(과주: 집문당, 2004), p.41.

11) 페르시아인 바하울라(Baha'u'llah, 1817~1892)가 창시하였고 19세기 중엽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종교이다.

12) 무라카미 시게요시(村上重良), 『일본의 종교 일본사·윤리사회의 이해(日本の宗教 日本史・倫理社會の理解)』, 강용자 옮김 (서울: 지식의 만드는 지식, 2012) pp.24~25, p.222.

13) 여기서 i), ii)로 뚜렷하게 분류되지 않는 시크교와 힌두교는 궁극적 실재를 초월적·인격적인 존재로 상정하는 종교로 분류한다. 먼저, 시크교의 창시자인 구루 나나크(Nanak)는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조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말하

불(佛, Buddhism), 도(道, Taoism)는 물론이고, 인도의 자이나교(Jainism)<sup>14</sup>가 이에 속한다.

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 1886~1965)에 따르면, 신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정의는 “신이란 인간의 유한성에 내포된 질문에 대한 답이다.”<sup>15</sup>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 실재에 대한 관념의 차이는 신과 인간 사이에 놓인 간극(間隙)의 정도를 얼마나 큰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서양에서도 독일의 낭만주의(18C말~19C 중엽)에서와 같은 범신론을 찾아볼 수 있지만, 한자경의 지적처럼, 그들의 “궁극적 하나(일자)는 결국 신에게 돌아가며, 신과 인간의 차이는 끝까지 남겨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sup>16</sup>이다. 아울러 김상일은 인격신에 대한 신앙과 비인격적 존재의 조화에 있어서 “한국과 같은 그러한 화합은 찾기 힘들다.”<sup>17</sup>고 지적한다. 이처럼 한국 근대에 출현한 대순사상에서는 신과 인간의 간극이 사라지고, 궁극적 실재는 인격적, 초월적, 비인격

---

듯 신은 궁극적으로 하나이지만, 힌두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이 여러 곳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오강남, 『종교, 심층을 보다』 (서울: 현암사, 2011), pp.434-435 하지만 시크교 역시 표층이 심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두꺼운 것이 사실이고, 오직 하나의 신만을 믿는 시크교는 유대교나 기독교, 이슬람교와 그 케를 같이 하는 종교로 본다. 유일신은 모든 곳에 편재하며 전지하고 전능한 존재이다. 이에 본교에서는 시크교를 초월적이며 인격적인 존재로 상정하는 종교에 포함시켰다. 또한, 브라마(Brahma, 梵天)는 힌두교 최고의 신으로 숭배 받는다. 원래 궁극적 실재인 브라만은 전(全)우주의 근원으로서 비인격적이고 중성적인 개념이었는데, 여기에 남성성을 부여하고 신격화하여 브라마라고 한다. 즉 브라만 자체는 어떤 속성을 띄지 않으며 비인격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인간 내면의 참다운 자아, 즉 아트만(atman)과 동일하다. 그래서 헉슬러도 그의 『영원철학』에서, 힌두교의 기본 가르침을 소개하는 데서 시작한다. 본교에서는 기본적으로 힌두교가 불교와 달리 신에 대한 순종을 기반으로 하기에, 궁극적 실재를 초월적이며 인격적인 존재로 상정하는 종교에 포함시켰다. 현재 힌두교도들은 브라만의 본질과 힘을 다양하게 드러내는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으며, 힌두교는 크게 비슈누교와 시바교의 2대 교파로 나뉜다.

14) 붓다와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마하비라(Mahavira, B.C.599(?)~B.C.527(?))가 창시한 비(非)브라만(Brahman) 계통의 철저한 자력 신앙[무신론]의 종교이다.

15) P. Tillich, *Biblical Religion and the Search for Ultimate Re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5, p.85.

16) 한자경, 「마음의 존재와 그 자각」, 『철학』 103 (2010), p.53.

17) 김상일은 “인도의 경우는 중국과 그리스의 중간 위치에 있다. 인드라와 시바 같은 유사 인격신에 대한 신앙과 비인격적 브라흐만을 조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적 규율 역시 그 정도가 적다고는 할 수 없다. 한국과 같은 그러한 화합은 찾기 힘들다.”고 말한다. 김상일, 『동학과 신서학』 (서울: 지식산업사, 2000), p.320.



적, 내재적 존재라는 다면적 양상을 보인다. 도표에서 보듯이 영원철학과 대순사상은 i)과 ii)를 아우른다는 특징을 갖는다.

### Ⅲ. 영원철학의 궁극적 실재 일치론

프랙털(fractal)은 우리말로 “자기 닮음성” 또는 “자기 유사성(類似性)”이라고 한다. 프랙털은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전체와 부분이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 둘째, 프랙털은 비규칙적, 비대칭적 구조이다. 셋째, 프랙털은 규칙성과 비규칙성, 단순성과 복잡성, 다양성과 일관성 등의 대조적인 특성들이 상보적으로 공존한다. 넷째, 위상공간에 나타나는 어트랙터(attractor)는 프랙털 특성을 갖는다.<sup>18)</sup>

중요한 것은 프랙털의 세계는 단지 ‘모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에 있어서도 공통분모를 지닌다는 데 있다. 자기 닮음성의 프랙털 구조는 전체적인 동식물이나 사물에서도 나타나고, 모든 인간의 몸의 구조는 물론이고 결국 생각도 동일하다는 것이다.<sup>19)</sup> 겉으로 보기에 서로 다른 언어, 피부색, 다양한 삶의 문화를 보일지라도 늘 동일한 모습으로 짜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해석은 일찍이 영원철학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자아초월심리학자이자 세계철학자 켄 윌버(Ken Wilber)가 말하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은 천차만별이지만, 모든 사람은 몸의 뼈 206개, 심장 하나, 신장 두 개, 사지(四肢)를 지닌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정신 영역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정신의 심층(深層)구조에는 보편적인 능

18) “‘끌어당긴다’라는 뜻의 어트랙터는 복잡한 영역 안에서 중심이 되는 운동의 한정된 영역을 가리킨다.” 최창현, 앞의 책, pp.149-150.

19) 세계적인 종교비평가인 카렌 암스트롱(Karen Armstrong, 1944~)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상적 세계에 객관적 실재로 존재했다. 형상론은 사실 속세의 모든 물체나 경험이 신성계에 그 대응물을 지닌다고 보는 고래의 ‘영원의 철학’이 합리적으로 표현된 것이었다.”고 말한다. 카렌 암스트롱, 『신을 위한 변론: 우리가 잃어버린 종교의 의미를 찾아서』, 정준형 옮김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0), p.127.

력이 있고, 이 능력이 이구동성으로 보편적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다.

그는 “종교적 경험이 내면적 형태로 감수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단순한 사적 지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sup>20)</sup>고 역설한다. 예컨대 ‘수학’과 ‘논리학’의 경우 우리는 그것들이 종교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눈에 의해 내적으로 보여 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들이 공적 중요성이 결여된 사적인 환상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은 동등한 훈련을 받은 수학자들에게는 공개된 지식이듯이, 이와 유사하게 명상적 지식 역시 동등하게 훈련받은<sup>21)</sup> 명사가 모두에게는 공개된 지식”<sup>22)</sup>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학적 명제의 진위를 검증할 때 우리는 감각적 명료성이 아니라, 정신적 명료성에 의존한다. 즉 명제의 진위는 물질적 감각이 아니라, 내적 경험의 일관성에 의거한다. 이것이 ‘과학적 검증’의 의미이다. 그래서 수학, 논리학, 심리학 같은 학문들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해 온 지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우주에는 손전등으로 탐험할 수 있는 동굴이 과연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sup>23)</sup>

요컨대, 존재의 영역은 편의상 물질(물리학), 생명(생물학), 마음(심리학), 영혼(신학), 정신(신비주의)의 5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것이 이른바 ‘존재의 대사슬(great chain of being)’이라는 도식인데, 존재의 사슬의 각 단계는 그 앞의 단계를 초월하면서도 동시에 포함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sup>24)</sup>

켄 윌버는 그것을 “홀론(holon)”<sup>25)</sup>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20) 켄 윌버 편, 앞의 책, p.31.

21) “양자역학에 의하면 세계에 대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작은 부분 집합에 불과하다.”고 한다. 손 캐럴, 앞의 책, p.362.

22) 켄 윌버 편, 앞의 책, p.31

23) 같은 책, pp.24-25.

24) 같은 책, p.26.

25) 헝가리 태생의 영국 작가 아서 케슬러(Arthur Koestler, 1905~1983)가 만들어 낸 용어다. 케슬러는 “실제로 어느 영역에서든 거의 모든 자연적 위계들은 동시에 다른 전체들의 부분인 전체로서의 홀론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며, “정확하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케슬러는 위계(hierarchy)라는 말이 더 정확하게는 홀라키(holarchy)가 되

‘Holon’의 어원은, 그리스어 ‘holos(전체)’에 ‘on(부분)’이 붙은 복합명사이다. 그래서 홀론은 ‘부분적 전체’, ‘부분이면서 동시에 전체’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그 자체로는 완결된 전체이지만, 동시에 보다 큰 것의 부분이며 요소라는 의미”<sup>26)</sup>이며 모든 존재는 부분과 전체의 속성을 함께 갖는다(프랙탈)<sup>27)</sup>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주만물은 홀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절대적 의미의 부분이나 전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바꿔 말하면, ‘전체를 부분의 집합’으로 보는 소위 환원주의(Reductionism)’는 부정되며, 세계가 계층적으로 등급화되어 있다고 파악한다. 영원철학자들은 우주가 홀론(holon)의 계층(hierarchy) 구조이기에, 홀라키(holarchy)라고 지칭한다. 모든 상위의 홀론은 하위의 홀론을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지칭하기 위해 쓰는 말이 홀라키다.

이것이 바로 영원철학의 중심 내용에 해당한다.<sup>28)</sup> 소위 존재의 대연쇄(大連鎖) 혹은 존재의 대동지(Great Nest of Being)는 여러 개의 중심원과 비슷하게 각 상위 차원이 하위 차원을 감싸고 포섭하는 존재의 양상을 표현한다. 영원철학자들은 지난 3천여 년 동안 이 대동지의 일반적인 수준에 관해서-수준을 몇 개로 나눌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범문화적 일치치를 보였다는 것이다.<sup>29)</sup>

<그림 1> “존재의 대동지”에서 보듯이, 우주 만물은 근원적으로 평

어아 한다고 지적”한다. 켄 윌버, 『감각과 영혼의 만남 : 세천년 영성의 시대를 위한 과학과 종교 통합의 길』, 조효남 옮김 (고양: 범양사, 2007), pp.132-133 여기에서 켄 윌버는 ‘영원철학의 기초 존재론’을 받아들인다. 이른바 ‘존재의 대시슬’이라는 도식인데, 이를 다른 말로 ‘존재의 대동지(Great Nest of Being)’라고 부른다.

26) 허훈, 『영원한 철학』 (서울: 울려, 2013), p.275.

27) 켄 윌버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한 혹은 다른 종류의 홀론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원자론자와 전체론자 사이에는 2천 년 이상이나 케케묵은 시시한 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궁극의 실재인가 전체인가 아니면 부분인가? ... 둘 다 맞습니다. 존재의 맨 위에, 또 맨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향으로 오직 ‘전체/부분’만이 있습니다.” 윌버는 그의 저작 『모든 것의 역사(A Brief History of Everything)』(2001)에서 홀론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켄 윌버, 『모든 것의 역사』, 조효남 옮김 (서울: 대원출판, 2011), p.52.

28) “영원의 철학에서는 실재는 곧 물질로부터 생명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이르는 존재와 의식의 ‘대 홀라키’라고 주장합니다.” 켄 윌버, 『모든 것의 역사』, p.78.

29) 허훈, 앞의 책, p.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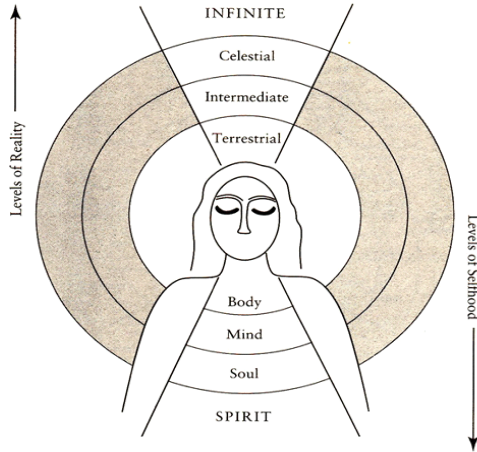


Figure 4-1. The Great Nest of Being. Adapted by permission from Huston Smith, *Forgotten Truth: The Common Vision of the World's Religions*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92, p. 62)

<그림 1> 존재의 대동지

등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인 차이·계층적 질서가 있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물질·마음·영이라는 세 가지 수준을 말할 수도 있고, 물질·몸·마음·혼·영과 같이 다섯 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도 제시할 수 있다.

이렇듯, 이러한 전체와 부분의 순환 구조적 관계는 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우주 전체가 전체인 동시에 부분과 연결되는 소위 ‘관계의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기에, 홀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홀론은 물질, 생명은 물론이고, 정신영역에까지 확대된다. 이미 영원철학자들도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발상은 참신(斬新)한 것은 아니다.

불교의 『범망경(梵網經)』에서는 “한 꽃마다 백억 국토요, 한 국토에 한 석가니, 이렇듯 천백억이, 노사나불(盧舍那佛)의 근본 몸이로다”<sup>30)</sup>

30) 동국대학교 불전간행위원회, 『한국불교전서(1권)』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p.47. 범망(梵網)이라는 뜻이 “범천(梵天)인 인드라의 그물과 같다”는 의미이다. 즉 범망경이라는 경전 이름 자체가 전체와 부분이라는 관계의 그물망(holon)을 뜻한다.

라고 하여, 일체가 하나고 하나가 일체(一卽一切 一切卽一)인 관계를 말한다. 『화엄경』에서도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또 일체 속에 하나가 있다(一中一切多中一)”<sup>31)</sup>고 말한다.

또한 “갈릴레오, 뉴턴, 아인슈타인과 같은 인물들 … 이들의 업적은 공통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은 자연의 ‘보편성(universality)’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 리처드 파인만(Richard Feynman)은 이런 사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 우주가 한 잔의 와인 속에 들어 있다’라고 표현하였다.”<sup>32)</sup>

<그림 1><sup>33)</sup>은 휴스턴 스미스(Huston Smith, 1919~2016)의 『잊혀진 진리: 세계종교들의 공통 비전』과 켄 윌버의 『모든 것의 이론』에서 제시하는 존재의 대등지이다. 이 그림은 휴스턴 스미스가 인정하고 채택한 것으로 세계 주요 종교들의 공통적 교의라고 할 수 있다. 아래쪽 방향의 화살표(↓)는 자아의 수준이 신체(身, Body), 마음(心, Mind), 혼(魂, Soul)과 영(靈, SPIRIT)의 수준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위쪽 방향의 화살표(↑)는 실재의 수준을 나타내며, 역시 신·심·혼·영에 각각 대응하는 육생(陸生, Terrestrial)·매개물(Intermediate)·천체(Celestial)·무한(INFINITE)으로 나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그림 1>을 바탕으로 세계 주요 종교들의 교의에 따라 해당 내용을 표시해 보면 다음 <그림 2><sup>34)</sup>와 같다.

31) 같은 책, 『화엄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2권)』, p.1a. “一中一切多中一, 一卽一切多卽一. 一微塵中含十方, 一切塵中亦如是.”

32) Feynman, R. P., Leighton, R., and Sands, M. *The Feynman Lectures on Physics*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1970), pp.46-48. 손 캐럴, 앞의 책, p.566에서 재인용.

33) Huston Smith, *Forgotten Truth: The Common Vision of the World's Religions* (New York: HarperSanFrancisco, 1992), p.62 ; Ken Wilber, *A Theory of Everything: An Integral Vision for Business, Politics, Science, and Spirituality* (Boston: Shambhala Publications, Inc, 2001), p.67.

34) Ken Wilber, *A Theory of Everything*, p.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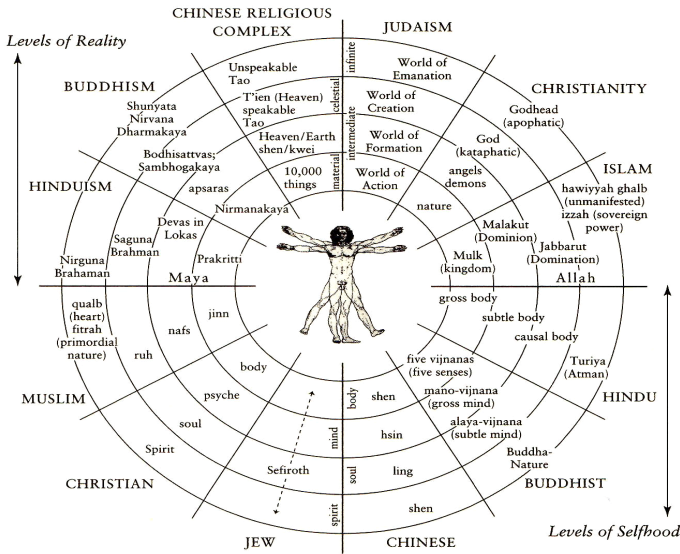


Figure 4-2. The Great Nest in Various Traditions.  
Graphic layout courtesy of Brad Reynolds.

<그림 2> 다양한 종교들의 존재의 대응지

이 그림은 세계 주요 종교들이 존재의 대응지에 부합되는 교의들을 - 표현은 다르지만-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그림의 하단은 <그림 1> 과 마찬가지로 신(身)·심(心)·혼(魂)·영(靈)에 해당되는-자아의 수준(개체차원)-종교들의 교의를 나타낸 것이고, 상단은 물질, 중간물(매개물), 천공(天空, 천체), 그리고 무한에 해당되는-실재의 수준(세계차원)-종교적 이념·주의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의 실재의 수준(Levels of Reality, 궁극적 현실) 가장 바깥쪽 동심원을 보면 힌두이즘의 ‘아무런 속성도 없는 브라흐만(Nirguna Brahman)’, 불교의 ‘궁극적이고 비(非)개념적인 열반 법신(Shunyata Nirvana Dharmakaya)’, 중국 종교들의 ‘언표(言表) 할 수 없는 도(道, Unspeakable Tao)’, 유대교의 ‘신령(神靈)의 세계(World of Emanation)’, 기독교의 ‘신성(부정

(否定)의 신학<sup>35)</sup>][Godhead(apophatic)], 그리고 이슬람교의 ‘드러나지 않는 지고(至高)의 힘[hawiyyah ghalb(unmanifested) izzah(sovareign power)]’이 있는데, 이는 하나의 궁극적 실재를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36)</sup> 주지하듯이, 비교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Joseph Campbell, 1904~1987)은 “세계의 모든 종교, 의식, 신들은 동일(同一)한 초월적 진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sup>37)</sup>한다.

영원철학의 선도자 역할을 해 온 슈온(Frithjof Schuon, 1907~1998)은 종교를 ‘현교적(顯教的, exoteric)’인 것과 ‘비교적(秘教的, esoteric)’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현교적이란 종교의 ‘형식(form)’을 이르는 말로써 건물·교리·제도·사제 같은 것이며, 비교적인 것은 종교의 ‘본질(essence)’로서 내적·신비적 영성 같은 것을 의미한다. 비교종교학자 휴스턴 스미스는 종교간의 관계를 수평적이라고 보지만,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외양적인 것(顯教)과 내밀한 것(秘教)은 수직적인 것으로 보아, 슈온의 사상을 다음 <그림 3>과 같이 표현한다.<sup>38)</sup> 그림에서 보듯이, 종교들의 현교적인 형식만을 보면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 비교적인 것 즉 본질적인 면모에 주목하고 이를 추구하게 되면 종교들은 초월적 통일이 가능하게 된다.

슈온에 따르면, “종교들이 비교적이 되면 아무런 차이도 없이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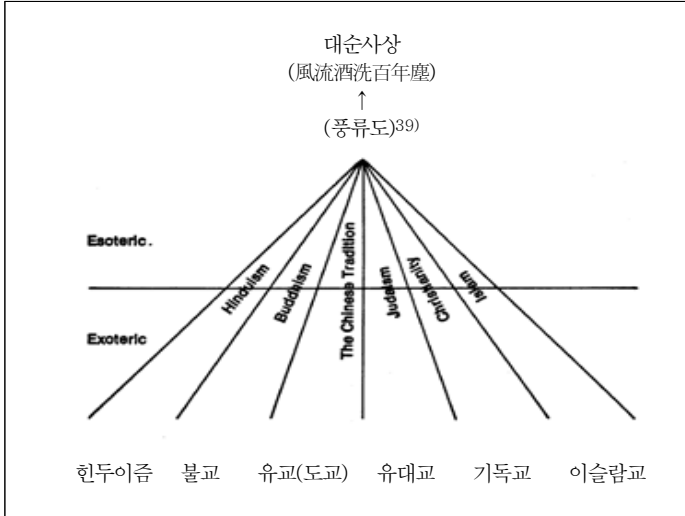
35) 신(神)은 인간의 언어로는 전부 묘사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며,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 본질을 인식하려면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정의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신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6) 카렌 암스트롱은 “초월적 가치를 그 본성상 정의(define)-원래의 의미가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하느님에 대한 진술이 역설적(逆說的)이어야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否定的)이라는 그의 주장은, 궁극적 실재가 “아무런 속성도 없고”, “비(非)개념적”이며, “언표 할 수 없는 도(道)”이자 “부정(否定)의 신학”이라는 <그림 2>의 내용과 일치한다. 카렌 암스트롱, 『축의 시대: 종교의 탄생과 철학의 시작』, 정영목 옮김 (서울: 교양인, 2016), p.718.

37) 켄 윌버, 『켄 윌버의 신』, 조옥경·김철수 옮김 (파주: 김영사, 2016), p.147. “조지프 캠벨은 가장 진보된 비교적(秘教的)인 샤먼은 자연의 또는 만유내재신적 현현인 다형상(多形象, polyform) 배후에는 실로 유일한 존재가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같은 책, p.212.

38) Frithjof Schuon, Huston Smith, *The Transcendent Unity of Religions* (Wheaton: Quest Books(IL), 1984), p.xii.

39) 그림은 휴스턴 스미스가 제시한 것이지만, 여기서 ‘풍류도’는 김상일이 삽입한 것



<그림 3> 종교들의 초월적 통일

될 수 있다”<sup>40)</sup>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세계 각각(各各)의 종교들이 상정하는 궁극적 실재가 실상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불선 포(包)삼교적인 우리의 풍류도(風流道)는 “현묘지도(玄妙之道)”라고 불리듯이, 그 비교적(秘敎的) 성격을 잘 드러낸다.

그래서 김상일은 세계 주류 종교들의 초월적 통일을 가능케 하는 상위 개념으로서 종교의 본질(비교적 성격)을 잘 함축하고 있는 풍류도를 제시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풍류도의 근대적 재현(再現)이 바로 대순사상이다. “근본을 다시 찾고 뿌리로 되돌아간다.”는 원시반본(原始返本)의 이치에 의해 풍류도적 특성이 한국 근대에 대순사상[동학]으로 다시 나타난다.<sup>41)</sup>

이다. 그리고 상단의 ‘대순사상’은 논자가 『전경』을 근거로 넣은 것이다.

40) 같은 책, pp.xi~xv.

41) 허훈, 「한국근대철학사상에 나타난 풍류도적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p.62.



風流酒洗百年塵<sup>42)</sup>

‘바람 풍(風)’은 우리말의 ‘신(神)바람 났다’, ‘신명(神明)났다’는 말 처럼, 신도(神道)를 상징한다. 최치원의 『난랑비서문(鸞郎碑序文)』에는 “국유현묘지도(國有玄妙之道)하니 왈(曰) 풍류(風流)”라고 하였다. 즉 현묘지도가 풍류인 것이다. 『전경』에서는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玄妙) 불측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sup>43)</sup>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치원의 실내포함삼교(實乃包含三敎)로서의 현묘지도 즉 풍류도는 폐해지고 열교(裂敎)로서의 선(仙), 불(佛), 유(儒)가 시대(時代) 순(順)으로, 차례대로 등장한다.<sup>44)</sup>

이 세상에 성으로는 풍(風)성이 먼저 있었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풍채(風采)·풍신(風身)·풍골(風骨)등으로 몸의 생김새의 칭호만으로 남아올 뿐이요, 그 다음은 강(姜)성이 나왔으니 곧 성의 원시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반본이 되므로 강(姜)성이 일을 맡게 되었나니라.<sup>45)</sup>

시성(始姓)이 풍씨(風氏)인데 풍류도인 신선의 비의(秘義)를 깨친 자(者)의 성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맥이 끊어지고 풍류도의 본질이 은폐되므로 풍씨가 사라지고 강씨가 시성으로 등장한다.<sup>46)</sup> 다시 말해, “상제는 원시반본하는 때라서 강씨 성으로 탄강하셨으며 인간 세상에 원시성이었던 풍성(風姓)이 15대에 대가 끊겨서 다음으로 강씨가 원시성이 되어 강씨로서 일을 맡게 된 것이다.”<sup>47)</sup>

42) 『전경』, 행록 3장 27절.

43) 같은 책, 예시 73절.

44) 허훈, 같은 글, pp.80-81.

45) 『전경』, 행록 4장 17절.

46) 허훈, 같은 글, p.81.

47) 『十八史略』, p.3, “太昊伏羲氏 風姓… 風姓이 相承十五世하니라. … 炎帝神農氏 姜姓(태호 복희씨는 성이 풍이고… 풍성이 열다섯 대를 서로 이었다. 열제 신농씨는 성이 강씨요.)” 고납식, 「대순진리회 강성상제의 신격과 그 의미 - 강성(姜聖)의 의미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2 (2014), p.19. 다음 도표는 고납식이 제시하는 것으로, 원시반본의 원리에 의해 풍성(風姓)을 대신하는 강성(姜姓)에 관련된 연구를

#### IV. 대순사상에 나타난 궁극적 실재의 프랙털적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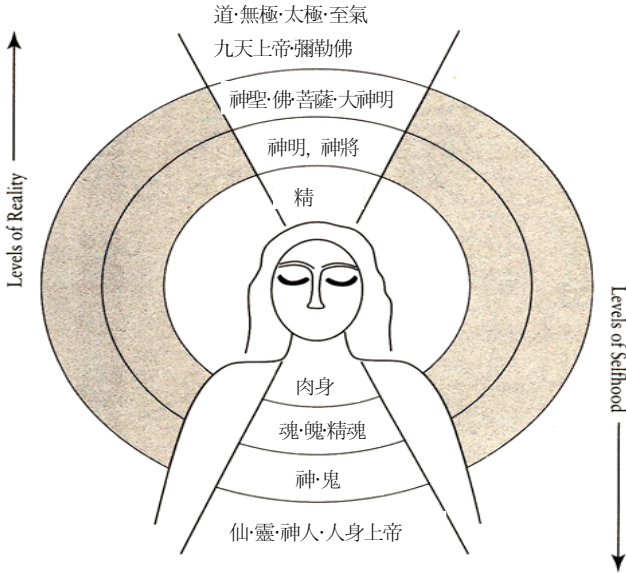
대순사상에서는 다양한 궁극적 실재에 대해 언급한다. 기존의 도(道), 상제(上帝), 무극(無極), 태극(太極)은 물론이고, 천지(天地)와 신명(神明), 지기(至氣)까지 실로 다양한 궁극적 실재의 개념들이 등장한다.<sup>48)</sup>

대순진리회 포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대순(大巡)이 원(圓)이며 원(圓)이 무극(無極)이고 무극(無極)이 태극(太極)이라. 우주(宇宙)가 우주(宇宙)된 본연법칙(本然法則)은 그 신비(神秘)의 묘(妙)함이 태극(太極)에 재(在)한바 태극(太極)은 외차무극(外此無極)하고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진리(眞理)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대순=원=무극=태극’이며, 대순이 곧 태극으로서 서로 동치(同値)적 관계에 놓여있다.

요약한 것이다. 본래 도표에는 “관련장”이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전경』 출처” 항목으로 대신 넣었다.

	姜姓관련 내용	典經 구절요약	비 고	『전경』 출처
1	彌勒佛	金佛能言 六丈金佛 化爲全女	兩山道 宗統	예시 14절
2	開闢長	開闢시대 原始返本이 되고 姜姓이 原始姓	姜一淳 西神司命	행록 4장 17절
3	原始返本86)	君師一體	道通줄 道通君子	교법 3장 26절
		血統줄 正立	祖上和 子孫의 有機性 道通 冥府是正	교법 3장 42절

48) 김의성, 「대순사상의 형이상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궁극적 실재를 중심으로」, 『철학논집』 42 (2015), p.423.



<그림 4> 대순사상에 나타난 존재의 대등지

익히 아는 바대로 태극은 우주 만물이 생성, 전개되는 근원으로서 그 근원이 되는 어떤 실체라고 보기도 한다. 주립계의 「태극도설(太極圖說)」에 따르면, 태극은 우주 만물의 이치로서, 또한 우주의 궁극적 존재로서 동정(動靜)이 지극하면 음과 양을 생성하고 다시 양이 변해 음을 합하여 오행을 생성한다. 이 다섯 가지 기운이 펼쳐지면 네 계절 [四時]이 행해진다. 포경문에서도 “이 태극(太極)이야말로 지리(至理)의 소이재(所以載)요, 지기(至氣)의 소유행(所由行)이며 지도(至道)의 소자출(所自出)이라. 그러므로 이 우주(宇宙)의 모든 사물(事物) 곧 천지일월(天地日月)과 풍뢰우로와 군생만물이 태극의 신묘한 기동작용(機動作用)에 속하지 않음이 있으리요.”라고 하였다. 즉 태극은 지극한 이치가 실려 있는 곳, 지극한 기운을 운행시킬 수 있는 곳이며, 지극한 도는 바로 이 태극에서 나오는 것이다.

기존 종교에서는 대체로 궁극적 실재의 일면만을 얘기하는데, 영원철학과 대순사상은 그 모든 측면을 회통(會通)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것이 궁극적 실재에 대한 대순사상의 형이상학적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존재의 대등지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이 그림은 <그림 1>, <그림 2>와 마찬가지로 하단은 자아의 수준(개체차원)이고, 상단은 실재의 수준(세계차원)으로, 대순사상의 교의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개체차원에서는 육신(肉身) → 혼·백(魂·魄)·정혼(精魂)<sup>49)</sup> → 신·귀(神·鬼)<sup>50)</sup> → 영(靈)·선(仙)·신인(神人)<sup>51)</sup>·인신상제(人身上帝)로 나타나고, 상단은 정(精) → 신명(神明)·신장(神將) → 대신명(大神明)·신성(神聖)·불(佛)·보살(菩薩)<sup>52)</sup> → 도(道)·무극(無極)·태극(太極)·지기(至氣)<sup>53)</sup>·구천상제(九天上帝)·미륵불(彌勒佛)<sup>54)</sup>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그림의 실재의 수준과 자아의 수준 가장 바깥쪽 동심원을 보면 진아(眞我, 靈·仙)는 도(道), 곧 “도즉아(道即我) 아즉도(我即道)”<sup>55)</sup>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도(道)가 곧 나요, 내가 곧 도(道)라는 경지(境地)를 정각(正覺)하고 일단(一旦) 활연관통(豁然貫通)하면 … 삼라만상(森羅萬象)의 곡진이해(曲盡理解)에 무소불능(無所不能)”<sup>56)</sup>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을 통해 『전경』에 나타난 평범한 인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상제의 기이한 행적들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57)</sup>

49) 『전경』, 교법 2장 22절, “도를 닦은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멩치기에 죽어도 흠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50) 같은 책, 교운 1장 19절,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하노라.”

51) 같은 책, 제생 43절, “水生於火 火生於水 金生於木 木生於金 其用可知然後 方可謂神人也.”

52) 같은 책, 교운 1장 9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역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53) 한국철학사편찬위원회, 『한국철학사전』 (서울: 동방의 빛, 2011), pp.534~536. “지기(至氣)론적 성령론” 참고.

54) 『전경』, 행록 2장 16절, “상제께서 어느 날에 가라사대 ‘나는 곧 미륵이라.’”

55) 『대순진리회요람』, 1969, p.9.

56) 같은 책, p.16.

실재의 차원의 구천상제는 피와 살을 지닌 인간, 즉 개체 차원의 인신상제(人身上帝)로 탄강하신 것이다.<sup>58)</sup> 또한 실재의 수준에서는 도(道)와 무극(無極), 태극(太極), 구천상제(九天上帝), 지기(至氣), 미륵불(彌勒佛) 등등의 궁극적 실재가 회통하는 개념으로 나타난다. 이에 “상제께서 하루는 공우에게 말씀하시길 ‘동학 신자는 최 수운의 갱생을 기다리고, 불교 신자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예수 신자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나, 누구 한 사람만 오면 다 저의 스승이라 따르리라’고 하셨도다.”<sup>59)</sup>

## 1. 신(神, 神明)의 프랙털 : 혼백(魂魄)의 인간

프랑스의 고생물학자이자 예수교 신부였던 페이야르 드 샤르댕(Pierre Teilhard de Chardin, 1881~1995)은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체험을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sup>60)</sup>라고 말한다. 주지하듯이 그는 과학의 언어를 사용해서 우주의 바탕에 대해 논한다. 한 마디로, 우주는 ‘수없이 많은 여럿(多)’이 ‘하나(一)’의 ‘조직’을 이룬 것이다. 모든 물질을 쪼개 나가면 계속 작은 알갱이로 나누어지지만, 쪼개고 나눌수록 물질은 ‘원래 하나’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치 우리의 몸이-세포 분열로 인하여-수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통일된 개체로 나타나듯이, 그러면서도 각각의 세포는 개체로 전환될 수 있는 생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기초는 ‘여럿’과 ‘하나’ 그리

57) 『전경』, 행록 3장 8절, “어느 날 종도들이 상제를 뵈옵고 “상제의 권능으로 어찌장 효순의 난을 당하셨나이까”고 여쭙니라.”

58) 같은 책, 행록 3장 2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며 아무리 위독한 병이라도 말 한 마디로 고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도다. 내 손자를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면 물은 고사하고 흙을 먹였을지라도 그 신성한 도술로 능히 낫게 하였으리라.’ 그는 분노에 못 이겨 몽둥이를 들고 와서 상제를 난타하니 상제께서 유희이 낱자니라. 그제서야 상제께서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고 일어나려고 하시니라.”

59) 같은 책, 예시 79절.

60) 정현채,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 할 필요 없는가』 (서울: 비아북, 2018), p.124.

고 그것들을 조직화시켜 주는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sup>61)</sup>라고 본다. 이러한 그의 통찰은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상당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sup>62)</sup>

김상일은 프레게(Gottlbo Frege, 1848~1925)<sup>63)</sup>의 수학적 논리를 통해 “인간이 신에 포섭되나 종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려”<sup>64)</sup> 하였다.

‘10보다 작은 양의 정수(positive whole number less than 10)’… 그런데 문제는 이 개념 자체는 양수도 아니고, 정수도 아니고, 10보다 작지도 않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이한 현상이 생긴다.

… ‘10보다 작은 양의 (홀수인) 정수’에는 9, 7, 5, 3, 1의 다섯 가지 숫자뿐이다. 그러나 ‘정수임’ 속에는 무한대의 숫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0보다 작은 양의 정수’라는 ‘개념’은 자기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라는 개념 속에 종속된다. 전체로서의 ‘개념’이 도리어 자기 속의 부분에 종속되는 현상이 생긴다. 그런데 ‘10보다 작은 양의 정수’ 속에는 ‘정수임’이란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말이다. 이것은 부분의 전체에 대한 대(大)반란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분이 도리어 전체를 포섭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을 프레게는 이처럼 논리적으로 증명했다.<sup>65)</sup>

여기서 ‘10보다 작은 양의 정수’는 대상(對象)이고, ‘양수임’, ‘정수임’, ‘10보다 작은’은 ‘속성(屬性)’이다. 그런데 ‘속성은 대상에 포섭되지만 종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요지다.

만약에 기독교처럼 인간[부분]이 신[전체]에 의해 포섭되는 존재라면 이른바 ‘신정론(神正論)’이라는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세

61) 이것은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1861~1947)가 그의 『과정과 실제』(1929)에서 궁극자의 범주를 다자(多者), 일자(一者), 창조성이라고 언급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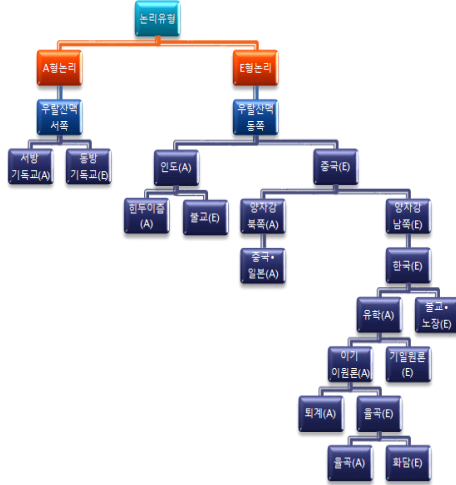
62) 켄 윌버, 『켄 윌버의 신』, pp.147-148 참고.

63) 독일의 수학자이자 논리학자로서 현대 논리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꼽힌다. 최초의 현대 철학자, 최초의 분석철학자로 불리기도 한다.

64) 김상일, 『수운과 화이트헤드』 (파주: 지식산업사, 2008), p.47.

65) 같은 책, pp.48-49. 원문의 일부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았다.

상에 악(惡)이 존재하는 이유를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데서 찾는다면, 자유의지를 부여한 신의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A형 논리(66)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피조물 이기에 신에 포섭되는 존재다. 신에 포섭된 인간 존재에게 악행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마저도 신의 피조물이기에



<그림 5> 종교의 프랙털 양상

신 스스로 허용한 자유의지를 탓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다면 자유의지에 따라 생긴 인간의 타락(Fall)은 신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결국 신정론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김상일은 E형 논리(67)에서 찾는다.

인간은 신에게 포섭은 되지만,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사실을 수학자 프레게는 논리학을 통해 발견했다는 것이다. 19C말의 수학자 G. 칸토어(Georg Cantor, 1845~1918) 역시 부분과 전체가 같다(68)

- 66) E. 프롬은 동양(중국과 인도)과 서양의 종교적 태도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언급한다. 그 차이는 논리적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와 ‘역설의 논리’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는 ‘참과 ‘거짓’을 이분법적으로 나눈다. 즉 논리에서 배중률과 모순율을 따른다. 이 논리를 따르는 ‘Aristoteles’, ‘Augustine’, ‘Acquinas’의 영문이름이 ‘A’로 시작되어 그들이 사용한 논리를 ‘A형 논리’ 또는 ‘아형 논리’라고 부른다.(Fromm, Erich, *The Art of Loving*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Publisher, 1956), pp.72~73; 김상일, 『수운과 화이트헤드』, pp.39-40.
- 67) ‘E형 논리’는 “거짓말이 참말이 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거짓말쟁이) 역설의 논리는 유브라이데스(Eublaides), 에피메니데스(Epimenides), 중세의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에 의하여 사용되었고, 이들의 영문 이름의 첫 글자가 E로 시작하여 이를 ‘E형 논리’ 또는 ‘에형 논리’라고 부른다. 김상일, 『수운과 화이트헤드』, pp.40-42.
- 68) 양자역학의 선구자 에르빈 슈뢰딩거(Erwin Schrödinger)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일상적인 이성(理性)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그리고 같은

는-자연수 전체 집합이 짝수 전체 집합과 같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당시 수학계를 놀라게 했으나, A형 논리를 따르던 당시 수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았다. 기독교 전통 속에서도 도미니코파의 신학자였던 에크하르트(Johannes Eckhart, 1260~1327) 같은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E형 논리를 사용했다. 그는 ‘인간’이 곧 ‘신’이라고 하여 이단시되었다. “인간과 같이 내재하며 함께 고통받는 신에 대한 이해는 곧 신과 인간이 서로 되먹임하는 관계에 있는 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69)</sup> 실로 인류 역사는 A형 논리와 E형 논리의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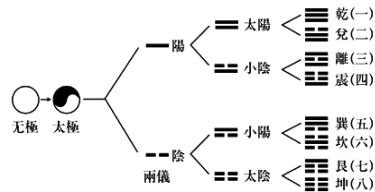
지구 전체를 동서로 나누고, A형 vs E형 논리로 갈라져 전개되는 양상을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5><sup>70)</sup>와 같다. 이 그림을 보면, 같은 것이 같은 것 속에서 갈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양단적(兩端的) 프랙털 현상<sup>71)</sup>이다.

의식을 가진 여러 존재는 전체(全體) 안에 존재하는 전체다.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은 단순히 전체의 부분(部分)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 그 자체다. 성스러운 신비주의의 공식은 간단하면서도 분명하다. 나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다.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다. 나는 바로 이 세계 전체다. 이처럼 당시는 어머니인 대지(大地)와 하나이며 ... 당신은 불사신인 대지와 마찬가지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며 사실은 대지보다도 천 배나 확고하게 불사신(不死身)인 것이다.” Erwin Schrödinger, *My view of the world*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64), p.21.

69) 김상일, 『동학과 신서학』, p.35.

70) 이 도식은 김상일의 주장을 논자가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71) 주지하듯이, 주역(周易)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프랙털(fractal)을 음양(陰陽)의 상징적 개념과 기호로 표현한다. 또 그것들을 조합하여 64개의 패턴으로 카오스(chaos)계를 묘사하고 설명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세상을 음과 양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그 위치나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 주역의 원리인데, 김상일이 제시한 논리 유형의 전개 양상 역시 주역과 동일하다. 복잡하고 혼돈스럽게만 보이는 카오스계는 애초 단순한 프랙털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앞서 『범망경(梵網經)』이라는 경전이름에서도 나타났듯이, 윤회도로 대표되는 동양의 전통과 종교들은 상대적으로 서구의 그것에 비해 우월한 교의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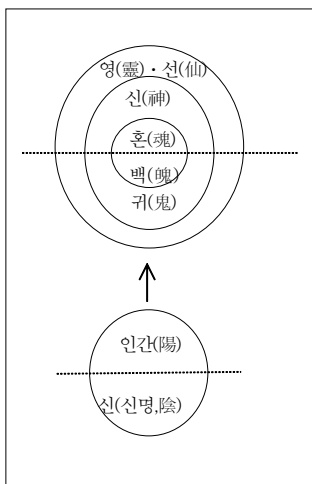


<그림 6> 주역 프랙털



인도와 중국의 신화 등에서는 A형 논리가 설 자리가 없다. 다시 동북아시아 신화의 논리에서 볼 때에 모두가 E형 논리적이다. 부분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다시 부분이 되어 되먹임하는 ‘통논리(通論理, trans-logic)’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통논리적 성격은 동양문화 전반에 걸쳐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통논리적이라 하더라도 카오스 이론에서처럼 되먹임의 정도와 횟수가 또한 문제가 된다. 부분과 전체가 되먹임하는 현상이 많아질수록 부분과 전체가 같아지는 홀론(Holon) 현상은 더욱 철저하게 만들어진다. 도가의 ‘도(道)’, 힌두이즘의 ‘범(梵)’, 그리고 불교의 ‘무(無)’ 같은 개념들이 모두 부분과 전체의 되먹임에 의한 홀론을 실현하자는 데 있으며, 그 되먹임의 정도에 따라 같은 동양사상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생긴다.<sup>72)</sup>

이렇듯 김상일 역시 홀론(Holon) 현상을 언급하면서, 도가·불교·힌두교의 도(道)·불(佛)·범(梵) 같은 핵심 개념들은 홀론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같은 동양사상이라 하더라도 ‘전체 ⇄ 부분’의 되먹임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대순사상은 어떠한가.



<그림 7> 인간 사후의 존재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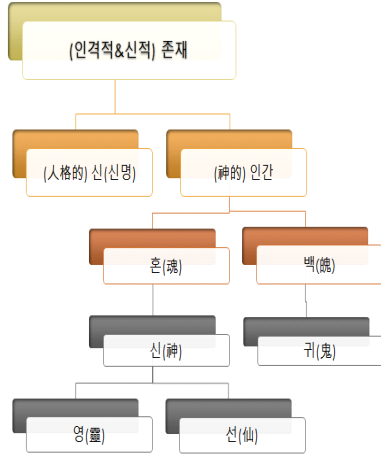
김 송환이 사후 일을 여쭙어 물으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사람에게 혼과 백이 있나니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다가 사대(四代)를 넘긴 후로 영도 되고 선도 되니라.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니라’ 하셨도다.<sup>73)</sup>

이에 따르면, 인간은 곧 신적(神的)

72) 김상일, 『동학과 신서학』, pp.35-36.

73) 『전경』, 교법 1장 50절. <그림 7> 출처: 허훈, 「영원의 철학(Perennial Philosophy)으로 본 대순사상의 신관」, 『대순사상논총』 25下 (2015), p.195.

존재다. 반면에, 신과 인간은 음양 프랙털 관계[☯]로서 인간이 신적 존재라면, 신(신명)은 인격적 존재이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신(神)·신명(神明)·신장(神將)과 같은 모든 신적 존재는 인격성(人格性)을 전제로 한다. ‘신명’이라는 용어는 인간과 대칭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다분히 인격화된 것이다.<sup>74)</sup> 이런 사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그리고 이것 또한 프랙털 양상이라는 것을



<그림 8> 대순사상에 나타난 프랙털

알 수 있도록 계층 구조형 다이어그램(diagram)으로 표시하면 <그림 8>과 같다. 이 그림들을 보면, “같은 것이 같은 것 속에서 갈라진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서양의 주류 종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에 대한 불경일 것이다.

II장 <표 1>에서 궁극적 실재를 “초월적이며 인격적인 존재로 상정하는 종교”들 대부분은—논리적·과학적·경험적 검증에 의거하는—홀론의 실현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전경』에서는 개체가 궁극적 실재에 포섭(包攝)은 되지만 종속(從屬)되지 않는 홀론의 관계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sup>75)</sup> ‘전체 속의 부분’, ‘부분적 전체’인 홀론은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한 사람의 품은 원한으로 능히 천지의 기운이 막힐 수 있으며”<sup>76)</sup> 실제로 한

74) 윤재근, 「대순사상의 신명관: 전경을 중심으로」, 『대순회보』 13 (1989), p.6; 허훈, 「영원의 철학(Perennial Philosophy)으로 본 대순사상의 신관」, p.196.

75) 『전경』, 공사 2장 5절, “상제께서 대신명(大神明)이 들어설 때마다 손을 머리 위에 올려 예를 갖추셨도다.”

76) 같은 책, 교법 1장 31절; 공사 3장 29절.

사람의 원한이 상제의 천지공사를 멈추는 작용도 한다.

상제께서 기유(己酉)년에 들어서 매화(埋火) 공사를 행하시고  
四十九일간 동남풍을 불게 하실 때 四十八일 되는 날 어느 사람  
이 찾아와서 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애원하기에 상제께서 공사  
에 전념하시는 중이므로 응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사람이 돌아가  
서 원망하였도다. 이로부터 동남풍이 멈추므로 상제께서 깨닫고  
곧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위안케 하시니라. 이때 상제께서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 기운이 막힌다”고 말씀하셨도다.<sup>77)</sup>

이 역시 궁극적 실재를 초월적 존재로 상정하는 서구 주류 종교에서  
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자아초월심리학 분야의 창시  
자로 꼽히는 스타니슬라프 그로프(Stanislav Grof, 1931~)는 켄 윌버  
가 영원철학의 기본 교리를 묘사한 것처럼<sup>78)</sup>, 우리 인간의 본성은 신  
적(神的)이며 우리 자신은 우주의 창조 원리와 동일하다고 강변한다.<sup>79)</sup>

## 2. 천지(天地) · 삼계(三界)의 프랙털 : 소우주 인간

대순사상에서는 ‘천지(天地)’가 궁극적인 실재의 자연적 측면으로서  
표현된다. 천지는 생명의 터전이자 우리 존재의 근원이다.<sup>80)</sup> 또한 삼  
계(三界)는 천 · 지 · 인에 신명의 측면이 결합되어 신명의 세계를 나타

77) 같은 책, 공사 3장 29절.

78) “켄 윌버는 ... 영원 반복의 철학에 근거한 기본교리를 묘사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본성은 신적(神的)이고, 최종 분석에서 우리 자신은 우주의 창조 원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과정이 우리를 신적인 정체성으로부터 분리하고 소외시키더라도,  
이런 연결에 대한 깨달음은 결코 완전히 상실하지 않습니다.” 어빈 라슬로, 스타니  
슬라프 그로프, 피터 러셀, 『의식 혁명(The Consciousness Revolution)』, 이택광  
옮김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p.87.

79) 켄 윌버 역시 “‘영원한 심리학(psychologia perennis)’의 핵심적 통찰은 인간의 가  
장 깊은 내부의 의식이 우주의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실재와 동일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고 한다. 존 웰우드 편, 『동양의 명상과 서양의 심리학』, 박희준 옮김 (서울:  
법양사출판부, 1994), pp.30-31.

80) 김의성, 앞의 글, pp.434-435. “천지에서 쓸 데가 있어서 하는 일이니 항상 말뚝  
을 부리면 역천이 되나니라.” 『전경』, 권지 2장 36절.

낸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삼재(三才)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천지뿐만 아니라 인간이 신명과 결부되어 있다고 보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sup>81)</sup>

이와 같이 천지의 프랙털이 인간<sup>82)</sup>이라면, 인사(人事)의 문제는 천지를 개조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sup>83)</sup>

이와 같이 삼계공사는 ‘천지(도수) → 신도(신명) → 인사(민생)’의 순차(順次)에 따른다. 단지 인사의 문제라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천·지·인(天地人)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sup>84)</sup>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기는”<sup>85)</sup> 것이며,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착란에 있으므로 명부에서의 상극 도수를 뜯어고쳐야”<sup>86)</sup>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급했듯이 인간은 신에 포섭되지만, 종속되지 않는 존재이다.<sup>87)</sup> “우주 대원(宇宙大元)의 진리가 도이며 도는 사람만이 깨달아 닦을 수 있으므로”<sup>88)</sup> ‘인존(人尊)’도 가능한 것이다. “해인(海印)은 먼

81) 김의성, 앞의 글, pp.438~439.

82) 시스템 철학의 기초를 세운 어빈 라슬로(Ervin Laszlo)와 심리학자 스타니슬라프 그로프(Stanislav Grof) 역시 현대과학과 영원철학이 ‘인간이 소우주’임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빈 라슬로, 스타니슬라프 그로프, 피터 러셀, 앞의 책, pp.84~85.

83) 『전경』, 공사 1장 3절.

84) 같은 책, 교법 1장 54절, “사람들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

85) 같은 책, 예시 8절.

86) 같은 책, 예시 10절.

87) 같은 책, 교법 1장 31절, “한 사람의 품은 원한으로 능히 천지의 기운이 막힐 수 있다.”

데 있지 않고 자기의 장중(掌中)에”<sup>89)</sup> 있으며, 그래서 천지가 평안하게 되는 것도 천지를 어지럽게 하는 일도 나로부터 비롯된다.<sup>90)</sup>

### 3. 천지신명(天地神明)<sup>91)</sup>의 프랙털 인간의 마음: 인존(人尊)

‘인존(人尊)’은 단순하게 인간을 존중하지는 차원을 넘어선다. 여기서 “‘존(尊)’의 의미는 고대로부터 인간이 숭배해왔던 신적인 대상을 내포한다. 즉 인존은 단순한 인간존중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가치에 신격(神格)을 부여한 것”<sup>92)</sup>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을 받들어 왔듯이, 이제 인간을 떠받드는 시대가 될 것<sup>93)</sup>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인존의 이념이다. 다시 말해 “‘인존’은 인간에게 신명성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 주체로서의 궁극적 실재와 소통하는 인간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신과 인간이 본래부터 하나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sup>94)</sup> 즉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음양(陰陽)의 관계로, 음과 양은 하나의 태극(太極)을 이루는 두 양상이 되듯이, 음과 양으로 비유되는 신과 인간은 하나의 존재에 대한 두 양상으로 이해된다.

신이 있고 인간이 있다. 신은 음이고 인간은 양이다. ... 신명을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은 신명을 기다리니, 음과 양이 서로 합하고 신과 인간이 서로 통한 이후에 하늘의 도가 이루어지고 땅의 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신의 일이 이루어진 연후에 인간

88)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p.23.

89) 『전경』, 교법 2장 55절.

90) 같은 책, 교법 3장 29절. “천지 종용지사(天地從容之事)도 자자유지(自我自由之)하고 천지 분란지사(天地紛亂之事)도 자자유지하나니.”

91) 신(神)과 신명(神明)은 보통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신명(神明)에서 “‘신(神)’이란 헤아리지 못함을 뜻하며 ‘명(明)’이란 영(靈)이 거울같이 밝은 것임을 뜻한다.”(『전경용어사전』) 명(明)은 일반적인 의미로 “이치에 밝아지는 것”이며, 마음과 관련된다.

92) 이경원, 「신인조화의 이념」, 『대순회보』 58 (1988), p.3.

93)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전경』, 교법 2장 56절.

94) 김의성, 앞의 글, p.442.

의 일이 이루어지며, 인간의 일이 이루어진 연후에 신의 일이 이루어진다.<sup>95)</sup>

도(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경위며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sup>96)</sup>

상제께서 을사(乙巳)년 봄 어느 날 문 공신에게 “강 태공(姜太公)은 七十二둔을 하고 음양둔을 못하였으나 나는 음양둔까지 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sup>97)</sup>

즉 신과 인간은 음양 프랙털의 관계<sup>98)</sup>로서,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원리에 따라야만 조화와 상생을 이룰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신인조화이며 이를 통해 인존이 실현되는 것이다.<sup>99)</sup>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sup>100)</sup>는 것이다.

마음은 귀신의 중요 기관이고, 문호이며, 도로이다. … 내 마음의 추기, 문호, 도로는 천지보다 크다.<sup>101)</sup>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마음은 하나의 원리로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고 덕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져야” 한다. 그리하면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sup>102)</sup>는 것이다. 예컨대, “진 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

95) 『전경』, 교운 2장 42절, 「陰陽經」, “有神有人 神陰人陽.”

96) 『대순지침』, p.18.

97) 『전경』, 행록 3장 28절.

98) 『전경』에는 인간과 신명의 관계를 밝혀 놓은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같은 책, 교법 2장 17절.

99) 대순진리회 교무부, 「신인조화(神人調化) 인존(人尊)의 실현」, 『대순회보』 66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7), pp.25-26.

100) 『전경』, 교법 2장 56절.

101) 같은 책, 행록 3장 44절.

102) 같은 책, 교법 1장 29절.

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다”<sup>103)</sup>는 것이다. 반면에, “의퇴심과 두 마음을 품으면 신명의 음호를 받지 못한다.”<sup>104)</sup> 이조 개국 이래 벼슬을 한 사람들은 모두 정(鄭)씨를 생각하였는데, 남의 신하로서 이심(二心)을 품었기에 이것이 곧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그것이 곧 역신(逆神)이라고 한다.<sup>105)</sup> 즉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면 신명들의 호위를 받으며 (일국의) 명부(冥府)가 되기도 하지만, 두 마음을 품으면 역신이 된다.

이처럼 인존은 마음을 닦아서 실현되며, 이는 신명과의-음양 프랙털-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앞서 삼계(三界)와 마찬가지로 천존과 지존, 그리고 인존에는 신격이 부여되어 있다. 천지뿐만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극치는 “인간의 가치에 신격(神格)을 부여함”으로써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 대순사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V. 결어

종교 간의 반목, 대립, 갈등은 기본적으로 신앙의 대상인 궁극적 실재에 대한 관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단적으로, 궁극적 실재가 사실상 같은 것이라면, 갈등은 종식될 것이다. 그런데 인류의 전통 지혜인 영원철학은 그것이 용어상의 차이일 뿐, 실재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대순사상에서도 다양한 궁극적 실재가 나타나는데, 그것들의 의미 또한 영원철학과 다르지 않다. 나아가 대순사상에서는 궁극적 실재라고 불리는 여러 개념들[상제, 신(神), 신명(神明), 무극, 태극, 도(道), 지기(至氣) 등]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어떻게

103) 같은 책, 교법 1장 2절.

104) 같은 책, 행록 4장 40절.

105) 같은 책, 공사 3장 19절.

하나의 실체가 다면성의 양상을 보이는지 설명한다. 이를 위해서 현대 과학의 프랙털의 원리를 원용하였다.

영원철학의 홀라키(홀론)는 인류가 3,000~6,000년 간 축적해 온 과학이론의 기초 모형이자 거의 모든 고등 종교 교의의 핵심 축(軸)에 해당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홀라키의 타탕성은 현대과학의 프랙털에 의해 다시 한 번 입증되고 있다. 만약 홀론이 실제 현상에 부합되는 이론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존립해 온 세계의 대부분의 고등종교, 전통철학, 현대과학의 기초적인 교의적·이론적 토대는 일거에 붕괴된다.

요컨대, 대순사상에 나타난 다양한 궁극적 실체는 프랙털(fractal)적 양상을 보인다.<sup>106)</sup> 신(神)의 프랙털이 혼백(魂魄)을 지닌 인간이며, 천지(天地)·삼계(三界)의 프랙털이 소우주 인간이다. 그리고 천지신명(神明)의 프랙털이 인간의 마음으로 나타나며, ‘인존(人尊)’으로 대변(代辯)된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는 독창적인 대순의 인존사상 역시 - 인간의 마음[心]으로 인존이 가능하므로 - 홀론[프랙털] 이론으로 설명 가능함을 밝혔다.

언급했듯이, 여러 종교 간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궁극적 실체에 대한 상이한 견해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궁극적 실체의 성격을 밝히는 일은 매우 긴급(緊要)하다. 영원철학은 영적 체험주의에 기초해서, 각 종교가 말하는 궁극적 실체가 사실상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대순사상에서는 그 다양한 궁극적 실체들이 서로 어떻게 회통할 수 있는지 보여 줌으로써 종교 간의 갈등, 반목,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106) 켈 윌버는 종교가 과학의 검증을 받지 않으면, 현 시대의 주류인 자유주의자들에게 거부당할 것이라고 한다.



## 【참고문헌】

- 『전경』,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4.
-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 『대순진리회요람』, 서울: 대순진리회 교무부, 1969.
- 『사략언해』, 서울: 명문당, 1999.
- 고남식, 「대순진리회 강성상제의 신격과 그 의미: 강성(姜聖)의 의미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2, 2014.  
<http://doi.org/10.25050/jdaos.2014.22.0.1>
- 김상욱, 『김상욱의 양자공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7
- 김상일, 『동학과 신서학』, 서울: 지식산업사, 2000.
- \_\_\_\_\_, 『수운과 화이트헤드』, 파주: 지식산업사, 2008.
- 김의성, 「대순사상의 형이상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궁극적 실재를 중심으로」, 『철학논집』 42, 2015.  
<http://doi.org/10.17325/sgip.2015.42.423>
- 대순진리회 교무부, 「신인조화(神人調化) 인존(人尊)의 실현」, 『대순회보』 66,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7.
- 동국대학교 불전간행위원회, 『한국불교전서』,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 무라카미 시게요시(村上重良), 『일본의 종교 일본사·윤리사회의 이해(日本の宗教 日本史・倫理社會の理解に)』, 강용자 옮김, 서울: 지식올만드는지식, 2012.
- 손 캐럴, 『현대물리학, 시간과 우주의 비밀에 답하다』, 김영태 옮김, 서울: 다른세상, 2012.
- 서양근대철학회 엮음, 『서양근대 종교철학』, 파주: 창비, 2015.
- 오강남, 『종교, 심층을 보다』, 서울: 현암사, 2011.
- 어빈 라슬로, 스타니스라프 그로프, 피터 러셀, 『의식 혁명』, 이택광 옮김,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 에드워드 데이머, 『엔터리 논리 길들이기』, 김희빈 옮김, 서울: 새길, 1994.
-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1』, 서울: 집문당, 2000.

- \_\_\_\_\_, 『한국종교연구 6』, 파주: 집문당, 2004.
- 윤재근, 「대순사상의 신명관: 전경을 중심으로」, 『대순회보』 13, 1989.
- 이경원, 「신인조화의 이념」, 『대순회보』 58, 1988.
- 이균형, 『우주의 홀로그래피』, 서울: 정신세계사, 2016.
- 존 웰우드 편, 『동양의 명상과 서양의 심리학』, 박희준 옮김, 서울: 범양사출판부, 1994.
- 정현채,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 할 필요 없는가』, 서울: 비아북, 2018.
- 최창현, 『신과학 복잡계 이야기』, 안성: 종이겨울, 2010.
- 카렌 암스트롱, 『신을 위한 변론: 우리가 잃어버린 종교의 의미를 찾아서』, 정준형 옮김,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0.
- \_\_\_\_\_, 『축의 시대: 종교의 탄생과 철학의 시작』, 정영목 옮김, 서울: 교양인, 2016.
- 켄 윌버, 『현대물리학과 신비주의』, 박병철·공국진 옮김, 서울: 고려원미디어, 1990.
- \_\_\_\_\_, 『감각과 영혼의 만남 : 새천년 영성의 시대를 위한 과학과 종교 통합의 길』, 조효남 옮김, 고양: 범양사, 2007.
- \_\_\_\_\_, 『모든 것의 역사』, 조효남 옮김, 서울: 대원출판, 2011.
- \_\_\_\_\_, 『켄 윌버의 일기(One Taste: Daily Reflections on Integral Spirituality)』, 김명권·민희준 옮김, 서울: 학지사, 2011.
- \_\_\_\_\_, 『켄 윌버의 신』, 조옥경·김철수 옮김, 파주: 김영사, 2016.
- 프랭크 웨일링 외 11인, 『종교 ; 지도로 본 세계 종교의 역사』, 김한영 옮김, 서울: 갑인공방, 2005.
- 한국철학사편찬위원회, 『한국철학사전』, 서울: 동방의 빛, 2011.
- 한자경, 「마음의 존재와 그 자각」, 『철학』 103, 2010.  
<http://uci.or.kr/G704-000127.2010.103.005>
- 허 훈, 「한국근대철학사상에 나타난 풍류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0. <http://uci.or.kr/G901:A-0004521834>
- \_\_\_\_\_, 『영원한 철학』, 서울: 울력, 2013.
- \_\_\_\_\_, 「영원의 철학(Perennial Philosophy)으로 본 대순사상의 신관」,

『대순사상논총』 25下, 2015.

<https://doi.org/10.25050/jdaos.2015.25.2.177>

- Aldous Huxley, *The Perennial Philosophy*, New York: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 1990.
- Erwin Schrödinger, *My view of the world*,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64.
- Frithjof Schuon, Huston Smith, *The Transcendent Unity of Religions*, Wheaton: Quest Books(IL), 1984.
- Erich Fromm, *The Art of Loving*,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Publisher, 1956.
- Huston Smith, *Forgotten Truth: The Common Vision of the World's Religions*, New York: HarperSanFrancisco, 1992.
- Ken Wilber, *A Theory of Everything: An Integral Vision for Business, Politics, Science, and Spirituality*, Boston: Shambhala Publications, Inc, 2001.
- Paul Tillich, *Biblical Religion and the Search for Ultimate Reali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5.

## 영원철학으로 본 대순사상의 궁극적 실재

국문요약

허훈

현대과학자들은 우주라는 복잡계(複雜界)에서 질서의 기본 단위 즉 프랙털(fractal)의 원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프랙털은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어떤 궁극적 실재가 다면적 양상을 나타내는 이유를 설명하는 원리로서 적합하다. 프랙털은 이미 과학계에서는 상용화된 원리로서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 널리 응용된다.

본고에서는 프랙털의 원리를 활용하여 대순사상에서 궁극적 실재가 구현되는 양상을 밝힌다. 대순사상에는 도, 상제, 신(신명), 무극, 태극, 천지 등 다양한 궁극적 실재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개념은 서로 회통한다. 즉 궁극적 실재가 프랙털 원리에 의해 구현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궁극적 실재들의 일치·회통은 현대과학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전(全)세계의 주류 종교들을 인격신교와 비(非)인격신교로 나누었을 때, 대부분의 종교들은 궁극적 실재를 초월적이며 인격적인 존재로 상징하고 있으며, 이들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프랙털[음양 프랙털, 홀론]의 관계로 상징할 수 없다. 또한 궁극적 실재를 내재적이며 비인격적인 존재로 상징하는 종교들도 홀론의 실현 정도-모든 부분과 전체의 되먹임-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순사상은 가장 직접적으로 신(신명)과 인간이 음양 프랙털의 관계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신(신명)은 음(陰), 인간은 양(陽)”, “인간이 곧 신적(神的) 존재”라는 것이다. 나아가 대순사상에서는 이 궁극적 실재를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회통할 수 있

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우주를 홀론(홀라키)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영원철학의 핵심 요지(要旨)이기도 하다. 세계의 위대한 영적 스승들, 사상가들,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채택한 보편적인 종교관 즉 영원철학에 따르면 궁극적 실재는 서로 일치하며, 인간과 신은 서로 다르지 않다. 바꿔 말해 대순사상에 나타난 궁극적 실재론의 진리성은 현대 과학과 영원철학에 의해 뒷받침 된다.

**주제어** : 궁극적 실재, 프랙털, 홀론, 대순사상, 영원철학